

1. 테마

어린 나이에 난공불락의 성을 계승 받은 여주인공의 성장

2. 프롤로그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프랑크의 철벽'이 무너졌다.

이때다 싶어 다가오는 외부의 적들.

'하나의 유럽'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다시 한번 기나긴 내전에 빠져버린 유럽.

아버지의 죽음에 슬퍼할 새도 없이 영지를 지켜야 한다.

지금껏 단 한 번도 함락되지 않았던 영지를... 이제는 나의 영지를...

3. 배경 스토리

프랑크 제국 내에 속해 있는 CASTLE OF καθάρως (캐슬 오브 카라리파).

세 제국(프랑크 제국, 서고트 제국, 사라센 제국)의 국경에 있는 난공불락의 영지이다. 역사적으로 이 영지의 국적은 세 제국 중 하나로 계속하여 바뀌었어도 항상 이 CASTLE OF καθάρως (캐슬 오브 카라리파)만은 역사상 세 제국의 어느 명장도 함락하지 못했다. 그래서 다스리는 제국이 바뀌어도 통치하는 황제의 신임을 온전하게 받아 영주의 적통이 이어져 오는 자치공작령이다.

현재는 프랑크 제국 소속이고 문화도, 종교도 다른 세 제국의 국경에 위치하여 전쟁과 국지 도발이 잦은 편이지만 영지민들도 영주를 무한정 신임하고 본인들의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편이다.

'하나의 유럽'이라는 기틀 아래 유럽의 모든 나라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 후계자들을 모아 아카데미를 만들어 그 가치를 유지하고자 했다. 이를 주관했던 프랑크 제국의 황제와 주인공의 아버지인 '카르카스 1세' 등 각국 주요 인물들이 '접대의 관습'을 무시한 고트족의 반란으로 몰살당하면서 유럽은 다시 전화에 휩싸이게 된다.

아카데미의 졸업식이 얼마 남지 않았던 주인공 '카르카스 2세'는 황급히 영지로 돌아가 16세라는 적은 나이에 공작 위에 오르지만, 같이 동문수학했던 후계자들이 이제는 적으로 돌변해 그녀의 영지를 노린다.

잉글랜드, 고트족, 사라센 제국, ... 사방에서 몰려오는 적들을 그녀가 막을 수 있을 것인가?

4. 게임의 목적

한 번도 함락되지 않았던 난공불락의 요새를 지켜라 !

5. 주요 캐릭터 설정

이름	카르카스 2세	나이	16세
종족	인간	직업	여공. 영주.
외모	호리호리한 체형, 아름다운 얼굴, 하얗다 못해 투명한 피부색. 타는 듯한 긴 적발, 또렷한 적안. 아랍인과의 혼혈로 특이한 외모.		
성격 및 특징	<p>혼혈로 태어나 특이한 생물을 보는듯한 시선에 항상 시달리다 보니 무감한 성격으로 변했다. 그로 인해 조용하고 언제나 사색에 잠겨 있는 듯하다. 그런데도 진중하지만 따뜻한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영주로 둔 영지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아 모나지는 않았다.</p> <p>유럽의 유명 후계자들을 모아놓은 아카데미에서 수위를 차지할 정도의 머리를 가졌으며, 군사학, 특히 공성전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모의 전투에서 지지 않아 역시 '프랑크의 철벽'이라는 카르카스 1세의 하나뿐인 딸이라고 명성이 퍼지고 있다.</p>		

이름	에드워드	나이	16세
종족	인간	직업	잉글랜드 왕자. 잉글랜드의 총 사령관.
외모	호리호리한 체형, 남자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미소년, 완벽한 균형감을 갖춘 검사의 몸. 언제나 하얀색의 갑옷을 입고 다닌다.		
성격 및 특징	<p>잉글랜드의 황태자. 건장한 체격과 우락부락한 외모의 왕족들과는 달리 균형 잡힌 몸매, 너무 다른 아름다운 외모로 인해 잉글랜드의 사생아라는 소문이 늘 따라다닌다. 그로 인해 외모에 대해 말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혹독하게 대처한다.</p> <p>각국 후계자들을 모아놓은 아카데미의 모든 수업에서 단 한 번도 저보지 않은, 현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후계자이자 유망주. 유일하게 공성전 수업에서 비기기만 했을 뿐 이겨보지 못한 카르카스 2세에게 흥미를 느끼고, 외모적인 부분이 트라우마라는 동질감 때문에 더욱더 마음이 가게 된다. 그러나 아카데미 졸업식을 앞두고 카르카스 1세의 죽음으로 카르카스 2세가 영지로 돌아가게 되고, 유럽 전체가 전화에 휩싸이면서 그 역시 잉글랜드의 총사령관으로 복귀해 유럽 본토의 나라들과 제국을 하나씩 장악하기 시작한다.</p> <p>잔혹한 전투 방식과 유럽 전쟁 역사상 최대 규모의 슈보시(전쟁지역 내의 모든 건물과 농지, 사람을 싹 다 불태우고 말살하는 작전)를 시행해 악명이 자자하다. 전투 시작 시에는 항상 하얀색의 갑옷을 입었지만, 전투가 끝나면 적군의 피로 갑옷이 아예 까매져 버려 유럽 전역에 '흑태자'라는 악명으로 이름이 더 알려져 있다.</p> <p>나중에 밝혀지지만, 불치병을 가지고 있고 주인공만 알고 있는 설정</p>		

6. 모험 지역 소개

CASTLE OF καθάρως (캐슬 오브 카라리파). 게임 내 이름.

프랑크의 철벽. 게임 내 이름이자 카르카스 1세 당시 모험 지역의 칭호.

엔딩 시네마틱 이후 '카르카손(Carcassonne)' -> Carsas + sonné'(종을 울리는). 승리의 종.

영주 : '프랑크의 철벽' 카르카스 1세(사망) -> 카르카스 2세

환경 : 종교(아리우스파 기독교, 카톨릭, 이슬람교)도 문화(프랑코포니 문화, 고트 문화, 아랍 문화)도 다른 세 제국(프랑크 제국, 서고트 제국, 사라센 제국)의 국경에 위치한 영지

제국 이름	프랑크 제국	서고트 제국	사라센 제국
종교	아리우스파 기독교	카톨릭	이슬람교
문화	프랑코포니	고트	아랍

내용 : 기원전 로마 시대부터 요새가 세워져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서고트 왕국, 프랑크 제국, 사라센 제국 등 역사적으로 이 영지의 국적은 바뀌었어도 항상 이 CASTLE OF καθάρως (캐슬 오브 카라리파)만은 역사상 어느 명장도 함락하지 못했다. 그래서 다스리는 나라가 바뀌어도 통치하는 황제의 신임을 온전하게 받아 영주의 적통이 이어져 오는 자치공작령. 세 제국의 국경에 위치해 전쟁이 잦은 편이지만 영지민들도 영주를 무한정 신임하고 본인들의 자부심이 굉장한 편이다. 현재는 프랑크 제국 소속이며, 기독교의 일종인 카타리파를 영지교로 인정하고 있다.

7. 구체적인 세계관

대륙에 대한 소개 및 주요 국가 설명.

근 몇백 년에 걸쳐 전화에 오래 휩싸여 있던 유럽 대륙에서 프랑크 제국이 등장해 잉글랜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 억제력을 가지게 되자, 프랑크 제국의 황제는 '하나의 유럽'이라는 기틀 아래 유럽의 모든 나라의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이제까지의 은원을 잊고 거의 강제로 맺어진 평화협정에 불만이 없는 나라가 없을 수는 없기에 최소한의 장치로 모든 나라의 후계자들을 모아 '아카데미'를 만들어 배신에 대한 억제력을 가지려 했다.

'아카데미'가 운영되면서 후계자들이 서로의 국가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며 프랑크 제국의 황제가 원하는 '하나의 유럽'이 탄생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이를 용납 못 하는 반대 세력 역시 계속하여 출몰하게 되었다. 아카데미의 기념비적인 첫 졸업식이 얼마 안 남은 시점, 이를 논의하기 위한 서고트 제국으로 파견 나간 프랑크 제국의 황제와 사절단들이 '접대의 관습'을 무시한 서고트 제국의 반대 세력에 의해 몰살당하면서 유럽은 건잡을 수 없는 전시 모드로 들어가게 된다.

프랑크 제국.

전제군주제. 군주가 국가의 모든 통치권을 장악하여 단독으로 행사하는 정치 제도를 지녔으며, 플라비우스 황제가 옹립되면서 무서운 속도로 팽창해 제국으로 불리고 있다. 백성들의 황제라 불리면서도 매우 뛰어난 정치력과 외교력, 그런데도 모자라지 않은 군사적 능력을 지녀 '하나의 유럽'이라는 기틀 아래 유럽을 통일시켜 대륙 자체를 확장하려 했으나, 이를 반대했던 세력들에 의해 살해당하고 제국은 갈기갈기 찢어진다.

서고트 제국.

'야만' 부족에서 시작해 오로지 전쟁으로 커온 제국. 힘을 숭상하며, 거친 풍습,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 프랑크 제국의 걸출한 황제 덕분에 평화로워진 유럽을 가장 못마땅했던 제국이며, 그에 따른 반대 세력 역시도 가장 강성했다. 여기면 반드시 신이 벌한다는 '접대의 관습'을 믿고 온 프랑크 제국의 사절단들과 평화협정을 맺었던 서고트 제국의 고위층을 모조리 참살해 유럽 대륙 자체를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전쟁터로 만들어버렸다.

사라센 제국.

이슬람교를 숭상하는 신정일치 제국. 최고 종교지도자를 겸하는 보편 군주인 '칼리파'가 존재한다. 다만 나이가 많아 물러나려는 '칼리파', 많은 아들과 후계 구도에 따라 땅과 지지층이 갈기갈기 조각나 있어 이를 타파하기 위한 노력을 하던 중, 혼란스러워진 유럽에 대한 침공을 준비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인권이 부족하여 나를 우호적이던 CASTLE OF καθάρως (캐슬 오브 카라리파)의 2대 영주인 주인공을 인정하지 않아 매년 막혀왔던 모험 지역을 우회하지 않고 그대로 뚫고 가려하고 있다.

잉글랜드 왕국.

유럽과 동떨어져 고고하게 홀로 존재했던 왕국들의 집합체였으나 바다를 건너와 이를 통일시킨 에드워드 3세로 안정을 찾았다. 그의 아들(주연 에드워드)이 특히나 뛰어나 앞으로의 왕국의 미래 역시 밝아 보였다. 그러던 중 유럽이 전화에 휩쓸리자 후계자인 에드워드가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어 군사를 이끌고 유럽의 모든 국가들을 하나씩 복속시켜나가고 있다.

8. 대사

Scene 5-n(중간정도) 카르카손 성 밖	
발생 조건	Scene 5-(n-1) 다 본 이후 키 입력
목표 미션	시네마틱
카메라 및 연출	
단단해 보이는 성과 그 반대편 거대한 군대. 새하얀 갑옷을 입은 에드워드와 새하얀 옷을 입은 주인공이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다. 대화가 안 들릴 거리 뒤에서 서로의 부관들이 둘을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다.	
대사	
<p>에드워드 : (덤덤한 목소리로) 오랜만이네.</p> <p>카르카스 : (조금의 반가움을 담아) 그러게. 에드워드. 아니, 이제는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하나? 잠깐 멈췄한 후 말을 이어가는 에드워드.</p> <p>에드워드 : (조금 안타까움을 담아 가벼운 한숨과 함께) 여기까지 퍼졌군.</p> <p>카르카스 : (단단한 목소리로) 흑태자 에드워드.</p> <p>에드워드를 아주 잠시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보고 말을 잇는 주인공.</p> <p>카르카스 : (안타까움+원망을 담아) 것처럼 새하얀 갑옷을 입었음에도 그런 별명을 달다니. 우리 제국민들을 얼마나 죽인 거야?</p> <p>1초 정도의 정적 이후 주인공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p> <p>에드워드 : 너와 가고 싶었다.</p> <p>주인공의 의아한 표정.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는 듯한 표정.</p> <p>에드워드 : 아카데미 졸업식.</p> <p>어이없다는 듯 살짝 웃고는 이죽이는 주인공.</p> <p>카르카스 : 군사를 이렇게 몰고 와놓고 그게 할 말이야?</p> <p>주인공의 웃음에 같이 살짝 미소짓고는</p> <p>에드워드 : 길을 비켜주겠나?</p> <p>아카데미 시절을 잠깐 떠올릴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p> <p>카르카스 : 잉글랜드가 아닌 유럽의 황태자. 아카데미의 무패자. 검술, 전략, 사교... 모든 과목에서 1등을 차지하던 네가 유일하게 못 이긴 게 나였지?</p> <p>에드워드 : 그 다음 말은 조심해서 뱉길 바란다. 같은 영주로써, 또 친우로써...</p> <p>그의 조용한 겁박에도 다시없이 환하게 웃으며</p> <p>카르카스 : 네 인생 유일한 패배를 내가 새겨 영광이다. 흑태자 에드워드.</p> <p>그 환한 웃음을 눈에 가득 담으려는 듯 충분히 쳐다보고는 대답 없이 뒤돌아 가는 에드워드.</p> <p>부관 앞에 도착한 그가 속삭인다.</p> <p>에드워드 : 이미 새겼다.</p> <p>부관1(엑스트라) : 네?</p> <p>부관에 물음에도 다시 뒤돌아 성으로 들어가는 주인공을 바라보는 에드워드. 페이드 아웃.</p>	

Scene 7-1 엔딩 시네마틱	
발생 조건	Scene 6-X 6번째 전투 승리 이후(6번의 전투를 모두 승리한 경우 나오는 엔딩)
목표 미션	시네마틱
카메라 및 연출	
<p>얼굴에 땀국물, 피딱지가 가득 찬 얼굴을 한 경계원이 망루 위에서 환희에 찬 얼굴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친다. 이를 들은 망루 주변 군인들이 그에 호응하여 소리친다. 그 소리를 들은 군인들이 똑같이 그에 호응하여 소리친다. 계속하여 퍼지는 호응에 성이 들썩인다. 지하에 있던 영지민들도 올라와서 주인공의 이름인 "Carsas"와 승리의 종을 울리라는 "sonné"의 목소리 사운드가 페이드인 되며 두 단어가 점차 겹쳐진다. 환호하는 영지민들과 군인, 물러가는 적군 군인들, 떠오르는 태양이 차례로 비치면서 두 단어의 사운드가 정점에 이를 때, 주인공이 성 위에서 정면을 바라보는 장면과 함께 게임의 이름인 "Carsassonné" 을 출력한다.</p>	
대사	
<p>무기를 서로 부딪히는 효과음 : (급한 듯이) '깡 깡 깡'</p> <p>망루 위 경계원(엑스트라1) :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적들이... 적들이 물러갑니다.</p> <p>적들이 물러가는 모습과 함께 두렵지만, 슬쩍 성 밖으로 고개를 들어보는 일부 군인들.</p> <p>망루 위 경계원(엑스트라1) : (아까와는 다른 환희에 찬 목소리로 커다랗게) 적들이 물러갑니다!!!</p> <p>옆에 있는 군인(엑스트라2) : (역시 환희에 찬 목소리로) 적들이 물러갑니다!!!</p> <p>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조금 더 많아진 인원들이 성 밖으로 고개를 든다.</p> <p>여러 목소리로, 산발적으로 나오는 외침 : 적들이 물러갑니다!!!</p> <p>지하에 있던 일부 영지민들이 이 소리를 듣고 조심히 나와본다. 밖에선 이미 소리를 질러댄다.</p> <p>군인들 : "Carsas"(주인공의 이름)</p> <p>군인들 : "sonné"(승리의 종을 울려라)</p> <p>영지민들 역시 아기를 안고, 가족들을 이끌고 나와 외침에 합류한다.</p> <p>종소리 효과음 : '땡 땡 땡'</p> <p>사운드가 페이드인 되며 점차 다음과 같이 겹쳐진다. : Carsassonné'</p>	